

‘실력 광주’ 선두주자 서석고 학습 비결

수준별 슬림·세분화 ‘S라인 수업’

광주서석고등학교(유당학원)는 학부모들 사이에 ‘S’고로 통한다. 학교의 영어 첫자가 ‘S’이기 하지만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 진학률이 타학교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교육 방식도 군더더기를 모두 뺀 ‘S라인’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매년 고입 시즌만 되면 예비 고교생들이 1지망 희망 학교로 선호하는 이유다. 서석고 교사진의 자부심도 대단하다. “신입생들에게 서석고로 배정된 것 자체가 큰 행운”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다.

이를 입증하듯 서석고는 2009학년도 입시에서도 졸업생 324명 중 3명당 1명꼴인 113명이 서울대와 연·고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과 경찰대, 육·해·공사 등에 진학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평가에서 학교경영 최우수학교로 선정되는 등 광주를 넘어 전국 교고를 대표하는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0학년도 수능능력시험을 앞두고 ‘실력 광주’의 선두주자인 서석고의 학습 비결을 살펴봤다.

◇교육의 균형을 모두 빠라=서석고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의 수업 방식을 슬림화, 세분화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S라인’ 교육 시스템이다.

학생의 학력 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눈 뒤 상급에 해당하는 학생을 또다시 최상, 중상, 하상 등 3개 단계로 나눠 수업을 진행한다. 각 학급은 10~20명 안팎의 소수 학생으로 이뤄진다.

하위권 학생들도 고교 1학년 때부터 철저히 관리된다. 본 수업과 방학 보충 수업 등을 통해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받고, 성적이 상승하면 다음 단계의 반으로 재편성된다. 학생들의 성적도 엑셀파일 등을 통해 3년 동안 세밀하게 분석·관리된다. 이는 고 3 때 대학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서석고 김주현 교장은 “교육도 인간의 몸

상·중·하 반 나눠 맞춤 학습

11년 이어온 인성교육 명성

교사들 실력 전국최고 수준

과 마찬가지로 필요없는 부분을 과감히 빼면 건강한 교육이 되고, 좋은 성적을 내게 된다”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성적 향상을 독려하는 게 서석고의 교육 방식”이라고 말했다.

◇11년간 이어온 봉사·인성교육=올해부터 대폭 확대된 입학사정관제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봉사과 인성 교육이다.

서석고는 11년째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무지개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각 학년별로 사회봉사시설과 연계해 체계적이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해 타 고교의 벤치마킹 모델이 됐다.

특히 전교생이 매달 1천원씩 불우이웃돕기 모금에 참여해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한 전국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는 검도부는

인성교육의 핵심이다.

서석고 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 90% 이상이 검도 초단을 획득할 정도다. 이를 통해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은 물론 인내와 예의, 집중력 등을 기르고 있다.

◇실력 스승 밑에 실력 제자=서석고 교사진은 지난해 수능 전문 방송에 8명이 초빙돼 강의를 맡을 정도로 전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특히 이 학교 영어담당인 유희주(여·29)교사는 교과부의 ‘영어 수업의 달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화여대 영어교육과 출신인 유교사는 최근 교과부의 영어교육 홍보 동영상 모델로도 발탁돼 내년부터 전국 영어교사들의 ‘롤 모델’로 활동하게 된다.

이러한 교사진의 실력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겨져 있다. 서석고 교사들은 선·후배 교사간 멘토링 제도를 통해 서로 수업 방식을 지도하고 격려한다.

광주시교육청 최윤길 장학진흥과장은 “서석고는 학업 성취도 향상은 물론 인성 교육을 잘하는 대표적인 학교”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0일 광주 서석고 2학년 학생들이 교내에 마련된 영어전용교실에서 이 학교 유희주 영어교사와 함께 영어퀴즈 풀이를 하며 즐거워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대학 탐방

③ 조선대학교 영어집중화 프로그램



조선대학교 기초의과학부 학생들이 원어민 강사의 지도로 프리토킹과 영어 퀴즈 등을 위주로 한 ELS강의를 듣고 있다.

하루 3시간 2년간 원어민 수업

해외연수 대체 취업·진로 영어 마스터 학원비 절감...서민층 학생들 큰 혜택

요즘 학생들은 단기 또는 장기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외연수는 휴학을 해야 하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 서민층 학생들은 엄두를 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전호중 총장은 외국에 어학연수를 가지 않고도, 영어구사력을 크게 높여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주는 방법을 엮을까를 고민했다.

특히 1~2학년 저학년 때 영어를 일정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때문에 해외 유학시 별도의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며, 취업 준비시에는 어학에 쏟아야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학생들이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소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외국인 교수가 직접 가르치는 맞춤형 교육과정인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영어집중화 프로그램을 개설했

다. 즉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학교에서 해외에서 수강하는 것과 똑같은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SL은 영어를 기본언어로 사용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자신의 나라 언어 외의 제2언어를 교육하는 시스템에 붙여진 이름이다. ESL 영어수업은 외국어 의사소통의 기본 능력인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을 종합적으로 편성해 기본에서 고급까지 단계화시킨 프로그램이다. 주 5일, 하루 3시간씩 학기당 225시간을 공부하며 한 학기에 3학점을 인정받는다.

조선대학교는 올해 ESL 프로그램을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신설한 기초의과학부, 글로벌법학과,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수과목으로 편성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선발한 CU leader장학생과 일반학생에게는 교

양선택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생들도 언어교육원 영어회화 2단계 수준이면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기초의과학부, 글로벌법학과 학생들에게는 4학기, 2년 동안 이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CU leader 장학생과 일반학생들은 2학기, 1년 동안 들을 수 있다.

수업은 외국대학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한 원어민 교수 10명이 진행한다. 원어민 특유의 교수법인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와 프리토킹, 퀴즈시험, 토론 등으로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ESL 영어수업은 학생들이 해외연수에 서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과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해외연수를 한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업료가 한 학기에 450만 원~500만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ESL 영어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매우 큰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 1학기 동안 ESL 영어수업을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하루 3시간씩 꾸준히 원어민과 대화하고 공부하면서 말하기, 듣기 실력이 크게 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말하기 공부 집중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자신감”

기초의과학부 1학년 장윤영

“세 시간 동안 세 분의 원어민 교수님들이 게임과 발표를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영어공부의 즐거움을 저절로 터득하게 됐습니다.”

올해 신설된 기초의과학부에 입학한 장윤영(19) 학생은 “고3생들은 대학 선택시 향후 진로 및 취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나 학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대학생들이 취업준비를 위해 토익공부를 하면서 듣기나 문법 수준은 월등하지만 말하기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ESL은 외국어과의 의사소통에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만큼 향후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호남대 교내 TV방송 개통 9월부터 10분 내외의 교내뉴스 송출

호남대학교가 9월부터 교내 TV방송을 개시했다.

호남대 신문방송사(주간 심연수)는 10일 교내 IP-TV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내 TV 방송을 지난 1일부터 송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대 방송국은 그동안 하루 3회 40분간 교내 라디오 방송을 해왔으나, 2회

기부터 TV 방송을 송출하게 된 것. 방송 내용은 보도 프로그램으로 10분 내외의 교내 뉴스를 전하게 되며, 광산캠퍼스 각 호관에 설치된 20대의 IP-TV를 통해 1일 10회씩 방영된다.

호남대 신문방송사는 올 들어 국내대학 최초로 “통합뉴스룸”을 구축했다. 통합뉴

스룸은 기존의 호남대신문사, 방송국, 영자 신문사(호남헤럴드)와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호남대학중문계간을 창간해 통합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호남대 TV 뉴스는 호남대 홈페이지(www.honam.ac.kr)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ukrakjeon Namgol-dang' (Curriculum and Textbook) with contact information: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IELTS) program, featuring a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010-671-1199.